

'위드 코로나' 연안 크루즈 닷 올린다

전남도, 관광상품 선사 모집 공고 선정 작업 돌입

부산~목포 시범운행...코로나 확산속 모객 관건

전남도가 위드 코로나(With Corona) 관광상품으로 연안 크루즈의 닷을 올린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전남 연안 크루즈 운영 선사 모집 공고를 내고 항로개발과 관광상품을 운영할 2개사 내외의 선사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지정 선사는 전남 서남해안권을 중

심으로 운항항로를 개발하고 체험, 음식, 특산품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관광지를 바탕으로 한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전남도는 운영 선사가 확정되면 상품홍보와 전세버스, 선내 공연 등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연안 크루즈 관광객 유치 인원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최근 국내 크루즈 선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목포, 완도, 강진, 여수 등지에서 팸투어를 실시했다.

이번 팸투어에는 목포시, 여수시, 항만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연안 크루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연안 크루즈 노선으로는 2박 3일코스, 부산~여수~백도~관매도~목포를 오가는 안을 구성하고 있다.

9000t급 크루즈를 이용해 1항차에 500명 이내의 중규모 관광객을 모집, 연 말까지 3항차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관

광상품으로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내년에는 코스를 늘리고, 국제 크루즈 유치에도 나서는 등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크루즈 도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규모 관광객 유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모객 유치가 관건으로 보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시대에도 운영할 수 있는 틈새 관광상품으로 연안 크루즈의 가능성을 시험한다"면서 "반응이 좋을 경우 전남 대표 관광상품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목포~재주 기점 항로를 운항하는 씨월드고속훼리(주)의 카페리 크루즈선 퀸메리호.

광주시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9억7600만원

9월 말까지 일제정리기간

광주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8월 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1만6002건에 9억7600만원이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가 9764건에 5억7600만원(60%), 지방소득세가 5590건에 3억6407만원(37%) 등이다.

금액별로는 5만원 이하 소액 미환급금건수가 1만1640건(73%)으로 가장 많다.

지방세 환급금의 주요 발생 유형은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후 소유권을 이전·폐차하거나, 국세인 소득세 경정으로 부득이하게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등이다.

광주시는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에 환급 대상 납세자들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문자메시지, 전화통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인터넷을 통해 위탁, 정부24 등에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 계좌와 환급금액을 입력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기동취재본부

광주농업기술센터 "추석 앞두고 별초기 무료 정비합니다"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시청 문화광장 등 4곳에서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추석을 앞두고 16일부터 18일까지 시청 문화광장 등 4곳에서 비대면으로 예초기 무상 정비·점검과 안전교육을 한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예초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불량 예초기를 점검하고, 안전 사용을 위해 무릎보호대와 얼굴보호망 등 안전용품도 지원한다.

정비와 교육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진행한다.

예초기는 비대면으로 접수해 수리한

후 개별 연락해 전달하면서 안전사용법도 교육할 예정이다.

예초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 전 예초기 상태 점검 및 주변 돌·나무 등 장애요인 제거, 작업자 안전모와 무릎 등 보호장구 착용, 작업 반경 내 작업자의 접근금지, 장시간 작업시 휴식, 휴식 시 예초기 시동 끄기 등을 지켜야 한다.

신민호 전남도의원,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에 총력

향후 의정협의체 논의과정서 의대 신설 꼭 포함돼야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여당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 의과대학 신설 논의의 중단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에 전남도의원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8일 전남도의회 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남

권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을 내고 당초 당정협에서 밝혔던 '의과대학 없는 곳에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방안'을 재논의 과정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중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중증질환치료 전문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은 전남이 유일하다"며 "국가적 의무마저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의료사각지대인 전남의 절박한 의료 환경 속에 국가의 존재이유를 찾는다면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은 조속히 확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의료서

비스를 받기 위해 연간 80만 명이 다른 시·도에서 진료 받고 있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중증환자들이 치료받을 대학병원이 없어서 다른 지역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의과대학 유치를 향한 200만 전남도민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민호 의원은 "의료인력 부족문제와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남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료 소외지역인 전남권에 의과대학을 반드시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동구, 빈집 채움 프로젝트 청년창업자 비대면 화상회의

광주 동구가 계림1동 일대 빈집 등을 활용해 추진한 '빈집 채움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년창업자들과 비대면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임택 동구청장은 청사 내 상황실에서 '화상채널 줌(ZOOM)'을 이용해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년창업자 10명과 비대면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화상회의를 통해 청년창업자들은 창업 추진사항을 임 청장과 공유했다. 임 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발생하는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향후 발전방안 모색, 사업 추진동력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서구, 통일 미래 대비 호남통일교육센터와 업무협약

광주 서구는 8일 호남통일교육센터(센터장 김영록)와 통일교육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시대적 구청장이 민선7기 공약으로 제시한 남북교류 기반 조성 및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구청장실에서 개최된 이날 협약식에는 서구청장, 김영록 호남통일교육센터장 등 양측 관계자 6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주민,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콘텐츠 및 강좌의 운영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기타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보교류 및 사업추진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남구, 연말까지 구도심 6곳에 범죄 예방시설 구축

광주 남구는 관내 구도심 지역의 범죄 예방과 안전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원룸과 주택가 등지를 대상으로 방범용 CCTV를 비롯해 LED 조명 안내판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남구는 8일 "사업비 2억7,000만원을 투입해 백운2동과 방림1동, 봉산1동, 월산4동, 주월1·2동 등 관내 구도심 6곳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시범구역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며 "이달부터 공사를 시작해 연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안전 인프라가 구축되는 장소는 백운2동 서광중 인근 원룸 및 주택가를 비롯해 방림1동 명지맨션 주변 주택가, 봉산1동 성성교회 주변, 월산4동 남부 아파트 일대, 주월1동 푸른길도서관 원룸 및 주택가, 주월2동 무등시장 뒤 주택 밀집지역이다.

북구,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 2년 연속 선정

광주 북구가 '문화가 있는 날 자유기획 프로그램'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됐다.

북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1년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자유기획 프로그램 운영 공모사업'에서 광주시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돼 국·시비 등 사업비 1억 5백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8일 밝혔다.

'문화가 있는 날 자유기획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생활 밀착형 문화시설을 거점으로 지역의 문화적·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기획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는 사업이다.

북구는 오는 2021년 구비 포함 총 사업비 1억 4천만 원을 들여 평생학습과 생활문화를 연계한 '숲의 별곡 시즌 2 -광주 북구 도시 숲 생활문화 축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광산구, 최대 44% 지역 우수제품 특별 할인 행사

광주 광산구가 추석을 앞두고 이달 28일까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 특별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됨에 따라, 4월부터 광산구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우체국쇼핑몰 입점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 할인행사는 그 연장선에서 실시된다.

행사기간 누구나 우체국쇼핑몰 '광산브랜드관'에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제품을 구입하면, 15~44%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8월말 현재, 광산브랜드관에는 24개 업체, 119개 제품이 등록돼있다. 입점 품목은 가공식품을 비롯해 여행용품, 차 세계제와 연료 첨가제 등 다양하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 21종도 구비된 상태다.

임형택기자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한국어문진흥재단
Korea Prose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복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합니다.

국민 이애복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므로,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소득구분	고소득층	중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급여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비율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형의 안전 →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진정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입법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